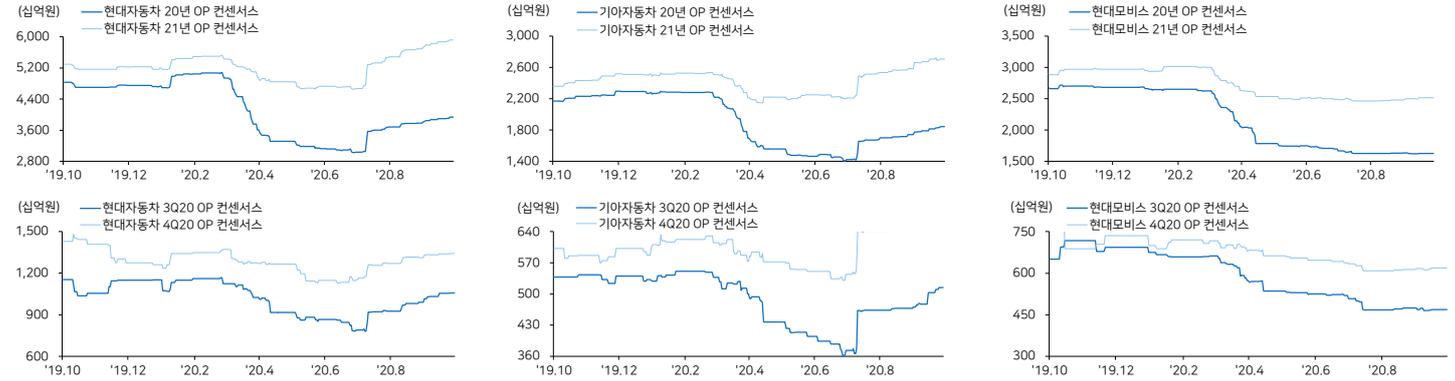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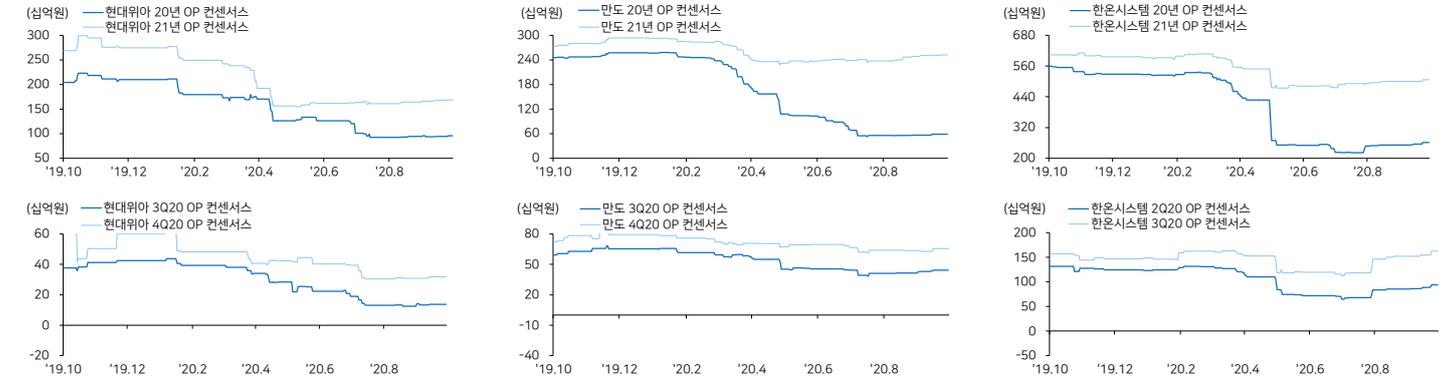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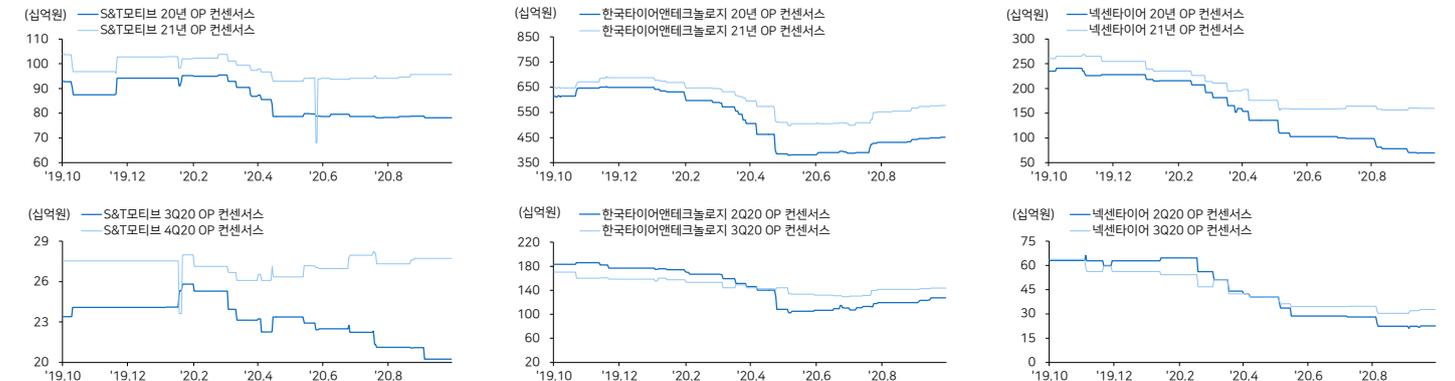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고민중' (서울경제)

현대차그룹의 수장이 된 정의선 회장은 15일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중"이라며 말을 아꼈. 정의선 회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답했다.
<https://bit.ly/3dDfIta>

수소인프라 뛰어든 현대차... 충전소 구축 '코하이젠' 내년2월 출범 (문화일보)

현대자동차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업계와 손잡고 수소전기차 상용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현대차는 정부와 민간이 동등하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SP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https://bit.ly/3lRRmV>

박영선, 현대차 증고차시장 진출 관련 "정의선 만날 의향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현대자동차가 증고차 매매 시장 진출을 타진한 것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15일 내비쳤다.
<https://bit.ly/3j4o8Om>

SKT, T맵 기반 모빌리티 사업 분사 (동아닷컴)

SK텔레콤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사업의 분사를 결정. 이동통신사를 넘어 종합 정보통신기술(CT)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SK텔레콤의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https://bit.ly/377Z9HO>

제네시스, 테슬라와 유사한 '펜더 카메라' 장착 테스트 (ZD넷코리아)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테슬라 차량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펜더 카메라'를 장착해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위장막 차량은 세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차량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https://bit.ly/342tWDP>

美, 볼트 EV 화재 조사 돌입 '불난 위치 코나와 비슷해' (모터그래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쉐보레 볼트 EV 화재 사고를 조사 중. 미국에서 접수된 볼트 EV 화재 사례는 3건. 아직 최초 화재 발생 부위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뒷좌석 하단과 뒷바퀴 인근을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상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12121295&volumeNo=29710882>

개소세 혜택 줄이자 내수 판매 급감... 자동차업계 인화 폭 확대 건의 (아이뉴스24)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축소해 따른 내수 촉진 효과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 등을 고려해 국회 개류 중인 개별소비세 70% 인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https://bit.ly/3dHEop>

동명투, 창업판 3조원 규모 '최대 IPO' (아주경제)

중국 국유 자동차기업인 동명자동차가 중국 선전거래소의 중소 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창업판(创业板·차이넥스트) 추가 상장을 추진. 창업판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https://bit.ly/316U9z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